

“교육 본질·기본에 충실하고 사명감 가져야”

정해웅 광주송일고 교장 정년 퇴임...40여년 교직 생활 마무리 교감 12년 재임 광주 최장...교육력 제고 등 미래 준비 큰 기여

“이웃과 공감·공존·공생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교 117주년 역사의 사학명문 광주송일고등학교의 정해웅(사진) 교장이 정년 퇴임식을 끝으로 40여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정 교장의 정년 퇴임식은 지난달 28일 송일고 소강당에서 학생회, 송일중·고교 이사·교직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학교의 특성을 살려 1부 예배와 2부 퇴임식 순서로 진행됐다.
장종섭 송일학원 이사장은 그의 교직 생활을 ‘아름다운 뒷모습’에 비유하며 “정 교장은 약 16년간 교감·교장직을 맡아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일을 감내했

던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회상했다.
이어 정은주 교감은 정 교장이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2년여 동안 교감으로 재임, 광주시 최장 부임 교감이었다는 점과 한국 교육개발원장이 임명한 고교 교육력 제고 창의경영학교 컨설턴트 및 평가위원으로 활약한 점 등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정 교장은 교육연구부장으로 부임했던 지난 2003년 e-learning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교과교실제 연구학교,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학교 운영 및 학생들의 학업에 크게 기여했다.
정 교장은 지난해 스승의 날에 근정포장을 수상했고 한국교총 교육공로상, 한국기독교학교



연합회 공로상, 대한사립중등교육교장회 공로장(태극장) 등도 받았다.
한기승 송일학원 이사장은 “정 교장은 뜨거

운 열정과 헌신, 도전 정신 및 진실한 태도로 오늘의 송일학원을 만들어낸 주인공”이라며 “그의 도전 정신은 퇴임 후에 목사로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교직원 대표로 정은주 교감은 송별사를 통해 “후배 교사가 존경하는 교장”이라며 “항상 따뜻한 사람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살피고, 오직 교육과 학생 지도에 온 정성을 다한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정해웅 교장은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추진, 이웃과 공감·공존·공생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 모든 것은 송일 구성원들의 격려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정 교장은 후배 교직원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교육의 본질과 기본에 충실하고 교육에 대한 사명감, 인간을 대하는 진실한 마음과 태도, 열정적·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기자

‘민주화 원로’ 이홍길 전남대 명예교수 별세



민주화를 위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이홍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3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함평 출신인 이 교수는 고등학생이던 1960년 포대 천구 12명과 광주 4월 혁명 시위를 처음으로 모의하고 1964년 6·3 한일 굴욕외교 반대 시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전남대에 재직하면서 박정희의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한 ‘우리의 교육 지표’에 서명해 해직과 복직을 경험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서는 도청 수습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항쟁지도부를 지원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제8대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생을 마쳤다.

빈소는 광주 광산구 스키장 장례식장 301호실에 마련됐다.

5일 오전 9시 발인에 이어 오전 10시 5·18 민주광장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다. /주성학기자



동강대, 육군 부사관학군단 첫 임관생 배출

동강대학교는 3일 “광역시군 전문대학 최초로 유치한 육군 부사관학군단(RNTC)의 첫 임관생을 배출하고 직업 군인의 꿈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강대는 지난 2022년 창설된 3개 RNTC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명문 학군단임을 입증했다.
동강대 제305학생군사교육단(이하 동강대 학군단) RNTC는 최근 전북 여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RNTC 87기 임관식에서 육군 하사 18명(남 13명·여 5명)을 배출했다.
‘직업 군인’의 꿈을 이룬 18명 가운데 김예주 하사는 우수한 성적으로 육군부사관 발전기금

이사장상을 받았다.
동강대는 이번 RNTC 임관식에서 집안의 대를 이어 화제의 부사관을 다수 배출했다.
황우성(군사학과) 하사는 6·25전쟁용사인 의조부와 육군상사로 전역한 부친에 이어 3대 제직업 군인의 길을 걷게 됐다.
아버지가 현역 중령인 김현진 하사와 월남전 참전용사 손자인 김정인 하사도 최첨단 부사관의 꿈을 꾸게 됐다.
이민숙 총장은 “영예로운 육군 하사 임관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육군의 미래에서 대한민국, 더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전남도-시·군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 협력 강화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 식품·공공위생 담당자 회의를 열어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 편안하고 깨끗한 숙박시설 제공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는 식품안전, 음식문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음식·숙박 편의 지원 ▲소상

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협의했다.
특히 오는 5월14-17일 열리는 제1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5월25-28일 펼쳐지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음식점·숙박업소 지도점검, 친절·청결 운동, 식중독 예방관리 등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양시원기자



코레일 광주본부, 송정역서 승강기 안전 캠페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는 “최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광주송정역 선상연결통로에서 승강기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캠페인은 코레일 광주본부와 광주송정역 직원, 고객참여단,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유지보수업체 등 30명이 참여했다. 또한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승강기 이용 시 ▲안전손잡이

잡기 ▲걸거나 뛰지 않기 ▲노란 안전선 안쪽으로 서기 ▲함께서기 ▲교통약자 및 무거운 짐 소지 고객은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등 올바른 이용 수칙 등에 관한 홍보가 이뤄졌다.
임석규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은정기자

송원대 철도관제교육센터 ‘4기 교육생’ 수료식

송원대학교 철도관제교육센터는 3일 “지난 2월29일 철도관제센터실에서 최수태 총장, 권태삼 철도아카데미 원장을 비롯한 분부처장들과 수료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교육생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제4기 교육은 철도대학 재학생 및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이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 10주 364시간 교육이 이뤄졌으며, 수료식에서는 교육기간 중 성적우수자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최수태 총장은 “철도교통관제사는 철도차량의 운영을 집중제어·통제·감시 등 철도교통 전체를 컨트롤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격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철도 발전에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대기자



권태삼 철도아카데미 원장은 “2027년 제2철도관제센터가 완성되고,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향후 철도교통관제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료생들이 철도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기자



박정보 전남경찰청장, 해남서 현장 간담회

해남경찰서는 “최근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이 해남경찰서를 방문, 주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는 경찰발전협의회, 시민경찰위원장 등 해남지역 10개 협력단체장들이 참석해 참여차인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치안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박정보 전남청장은 해남 읍내지구대를 방문해 주민정성치안 관련 표창을 부여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청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폴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폴북’은 각 연결된 카뎀에서 협력단체들과 주민들에게 경찰 홍보나 활동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정의된다. /해남=박필용기자

동구 지산1동, 저소득가정에 ‘새 학기 신발 나눔’

광주 동구는 “최근 지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새 학기를 앞두고 관내 청소년들의 학원 출발을 응원하고자 ‘새 학기 청소년 신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청소년 12명에게 신발 상품권(10만원 상당)을 전달,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영심 지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수 지산1동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은정기자

여수상의 제25대 회장에 한문선 보임열병합발전 대표



여수상공회의소는 3일 “제25대 신임 회장에 한문선 보임열병합발전(주) 대표이사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8일 여수상의 1층 챔버홀에서 ‘제25대 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앞서 선출된 상의의원 42명(1명 불참)이 참석한 가운데 39명의 합이 추대로 한문선(60) 보임열병합발전(주) 대표이사를 여수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상의회장 후보는 김창주(우후엔 대표)이사와 한 회장 등 두 후보가 출마했으나, 김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한 후보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한문선 신임 회장은 “우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회원사와 잘 협의해 상의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장성경찰, 주민참여 교통신호체계 합동 점검

장성경찰서는 “최근 장성-담양 간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교통신호체계를 지역주민과 함께 합동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장성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주민참여 정성치안’의 일환으로 6 회차를 맞았으며 지역 주민, 도로교통공단, 장성군 등이 참여했다.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신호주기, 과도한 신호대기로 배급 위반을 조장하는 장소 등 신호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으며 노후된 신호제어기 2대를 교체하고 8개 교차로를 신호연동화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전병현 장성경찰서장은 “주민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문태기자

인사 대중문화재단 ▲미디어총괄본부장 최혁

▲임명현씨 별세, 나세홍(광주시교육청 대변인) 씨 모친상=발인 5일(화) 오전 8시 광주 기독교병원 장례식장 특실(062-653-4400).